도래솔 “그럼 이걸로 끝! 다음 주에 보자~”

도래솔 선생님의 전달 사항이 끝나자, 반 애들은 빠르게 교실 밖으로 나갔다. 금요일이니까 다들 놀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

나 홀로 느릿하게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이미 교실엔 나밖에 없었다.

“이제 어떡할까….”

가방도 챙겼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아직 학생회 활동 시작하기까진 멀었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긴 귀찮아서, 여태까진 학생회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지금은….

(고은혜 웃는 모습 흐릿하게 등장)

차마 학생회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학생회 시작할 때나 오니까, 학생회실엔 은혜 선배만 있을 텐데.

은혜 선배랑 단둘이 있는 건 너무 무섭다.

내가 알던 상냥하고 친절했던 선배가….

(고은혜 진짜 모습 흐릿하게 등장)

…그렇게 무시무시해질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본모습을 숨기고 있지만, 이미 선배의 정체를 아는 내 앞에선 숨길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흑화 은혜 선배의 상태로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모습의 선배랑 밤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옥상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춥기야 하겠지만….

“그래. 옥상으로 가자..”

춥기야 하겠지만, 거긴 무섭지는 않잖아. 오늘은 다행히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은혜 선배랑 계속 마주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편하겠지. 나는 그리 마음먹고 나만 남아있는 교실을 나섰고.

(문 여는 소리)

“아~ 후배! 기다렸어!”

밖에서 기다리던 은혜 선배와 마주했다.

“은혜 선배!?”

“후후. 놀랐어?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할 말이요…?”

“응.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둘만의 비밀 이야기?”

은혜 선배는 부끄러운 듯이 말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불길함으로 가득 찼다.

뭐지? 나 누구한테도 선배 얘기한 적 없는데?

“아~ ‘그 얘기’는 아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해서. 근데….”

은혜 선배가 주위를 쓱 살피더니, 표정을 바꿨다.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겠네.”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은혜 선배의 무표정이 나왔다.

“너. 주말에 뭐 해?”

“주말이요? 그냥 집에 있는데요….”

“그래? 잘됐네. 시간 비워둬.”

“…왜요?”

“왜긴. 내가 너한테 볼일이 있으니까.”

무슨 볼일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묻지 말라는 듯이 은혜 선배가 째려보고 있었으니까.

“오늘부터 할까 했는데, 됐어. 오늘은 쉬어둬.”

“마지막 휴일이라 생각하고 말이야.”

“그럼….”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자, 은혜 선배는 다시 표정을 바꿨다.

“후후. 있다가 학생회실에서 보자! 주말 약속 기대하고 있을게!”

그러곤 은혜 선배는 유유히 학생회실로 떠나갔다.

…근데 방금 선배.

마지막 휴일, 이라고 했지?

…….

…대체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